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CHINA

중국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6/22~06/28

- 태평양 항로 및 환적 전략 변화
- 중국-유럽 철도 및 중간허랑 물류 협력 확대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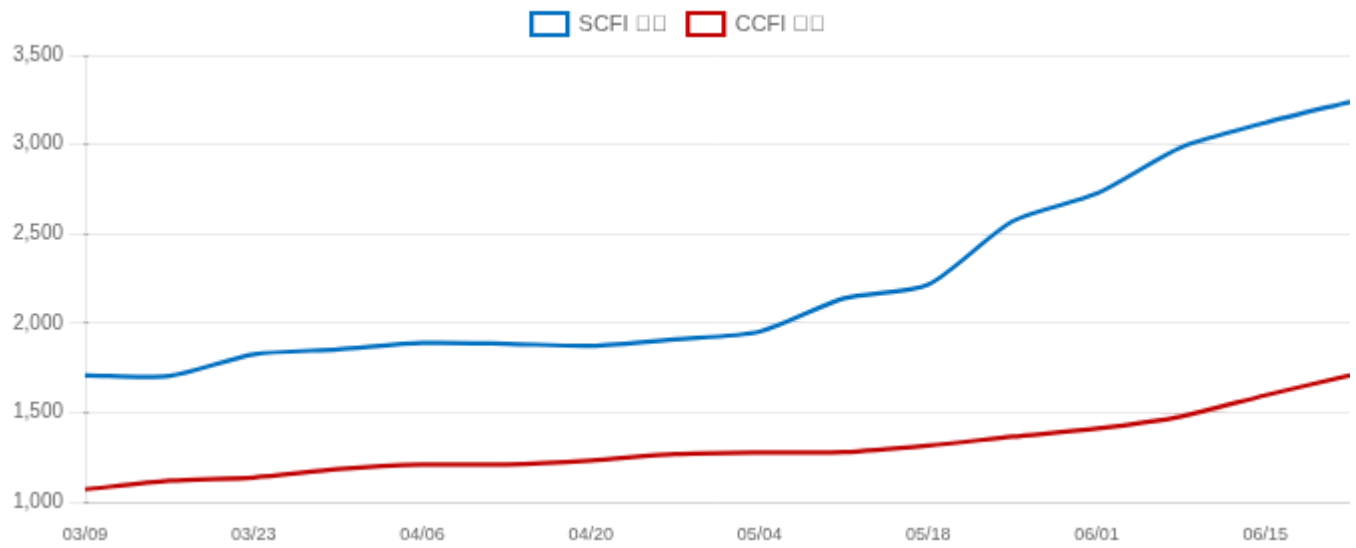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는 글로벌 해상 및 철도 물류망에서 항로 전략의 재편과 협력 확대가 핵심 흐름으로 나타났다. 태평양 항로에서는 부산항과 홍콩을 중심으로 환적 전략이 가속화되며 물류 허브 경쟁이 심화되었고, 한편으로 중국-유럽 철도와 중간회랑 물류 협력이 확대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운송 효율성 증대가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팬데믹 이후 공급망 다변화와 지역별 물류 거점 재편이 실질적으로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특히 부산항은 환적 물동량 증대가 기대되나, 대만·중국 등 인접 항만과의 경쟁 심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향후 중국-유럽 철도 및 중간회랑 협력이 확대되면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프라 투자 속도가 변수가 될 것이다.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종합	3,239.64 pt	06/22	+3.8%	+26.0%
CCFI 종합	1,710.47 pt	06/22	+7.0%	+25.1%
KCCI 중국	54 \$/FEU	06/22	0.0%	+3.8%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CCFI · KCCI) · 기준 06/22

태평양 항로 및 환적 전략 변화

태평양 항로에서 중형 및 글로벌 선사들의 환적 전략 변화가 부산항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항공화물 환적 시장에서도 홍콩의 성장이 두드러짐.

SM라인이 2026년 7월 선전-부산 익스프레스(SBX)를 신설하여 기존 태평양 북서안(PNW) 서비스에서 엔텐 직기항을 부산 환적으로 대체함. 이로 인해 PNW 항로 운항일수가 42일에서 35일로 단축되었으며, 1103TEU급 선박이 투입됨. 이는 환적 화물 유지와 선단 운영 효율성을 겨냥한 전략으로, 부산항이 중국 남부 화물의 태평양 환적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함.

ZIM은 지중해-극동 ZMP 서비스에서 부산을 제거하고 텐진을 추가 기항지로 편입함. 개편된 로테이션은 텐진-칭다오-상하이-닝보-선전-호찌민-유럽-이스라엘 순으로 운영되며, 부산 연결성은 Ningbo 환적으로 유지됨. 이는 중국 북부 직접 서비스 확대와 환적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한 전략으로, 아시아-지중해 노선의 효율성 경쟁을 촉발할 전망.

홍콩국제공항의 5월 화물 처리량은 43만5000톤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으며, 환적 물량이 23.2% 급증하며 성장을 주도함. 중국 본토와 동남아시아행 화물이 증가한 반면 인도 등 일부 시장은 감소함. 델타항공의 홍콩-로스앤젤레스 노선 신규 취항 등 네트워크 확장이 북미 연결성을 강화할 예정.

중동 지역은 분쟁 이후 5월에 처음으로 항공화물이 소폭 성장하며 회복 조짐을 보임. 하반기 중동 수요 회복 여부가 홍콩발 항공화물 물동량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SM라인 SBX 신설로 PNW 항로 운항일수 7일 단축, 1103TEU 선박 투입
- ZIM ZMP 서비스 부산 제거·텐진 추가, 부산 연결은 Ningbo 환적 유지
- 홍콩공항 5월 화물 43.5만 톤, 환적 23.2% 급증
- 델타항공 홍콩-로스앤젤레스 주 7회 신규 취항 예정
- 홍콩 1-5월 누적 화물 206만 톤, 전년 대비 3.6% 증가

전망

태평양 항로에서 환적 허브 경쟁이 심화되며 부산항의 중계 물동량 확대가 예상됨. ZIM의 개편이 다른 선사들의 유사한 로테이션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으며, 홍콩항공화물은 환적 성장세와 중동 회복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갈 전망.

시사점

화주 — 엔텐 지역 화주는 태평양 노선 접근 시 부산 환적 경로 변경이 불가피해짐.

포워드 — ZIM의 텐진 기항 확대와 부산 환적 유지는 한국 포워더에게 물동량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항만 — 부산항은 SM라인의 환적 전략에 힘입어 태평양 환적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

중국-유럽 철도 및 중간회랑 물류 협력 확대

중국-유럽 철도 및 중간회랑 물류 협력이 확대되면서 운송 효율성과 물동량 증대가 전망됨.

장쑤 국제 철도 화물 특급이 TITR 협회와 회의를 열어 중간회랑 물동량 유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함. 양측은 련윈강항 인프라를 활용해 일본, 한국,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는 신규 물류 체인 구축 필요성에 공감함.

장쑤 국제 철도는 '4방향-8회랑' 모델로 26개 정기 노선을 운영하며, 26개국과 연결됨. 이 네트워크는 일대일로 회랑을 따라 약 80개 물류 터미널을 보유하고, 5개 주요 허브에서 복합 운송을 조정 중임.

TITR 노선의 운송 효율성 제고와 물동량 증대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함. 이번 협력이 중간회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충칭에서는 중국-유럽 철도를 통해 40피트 35톤 규모의 범용 자동차 컨테이너를 활용한 자동차 수출이 시작됨. 이는 철도를 통한 차량 운송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으로 평가됨.

- 장쑤 국제 철도, 26개 정기 국제 노선으로 26개국 연결
- 약 80개 물류 터미널 보유, 5개 주요 허브에서 복합 운송 조정
- 중간회랑 물류 협력 강화로 TITR 노선 경쟁력 제고 전망
- 충칭, 40피트 35톤 자동차 컨테이너로 철도 수출 효율 개선

전망

중간회랑과 중국-유럽 철도의 협력 확대는 물류 다각화와 운송 시간 단축을 촉진할 것으로 보임. 특히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화물의 철도 운송이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프라 투자 조달이 과제로 남음.

시사점

화주 — 중간회랑 활용으로 중국-유럽 간 운송 경로 다각화 가능

포워드 — TITR 노선과 중국 철도망 연계 서비스 개발 기회

항만·선사 — 련윈강항 등 중간회랑 항만의 환적 물동량 증가 기대